

# 경찰관서 규모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비교 분석

## Comparative Analysis on the Levels of Stress by the Police Department Size

신성원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Seong-Won Sin(police7@dhu.ac.kr)

### 요약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조직적 특성 중 경찰관서의 규모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경찰관서 규모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수는 관서규모와 급지, 종속변수는 생활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외상성 스트레스로 구성하여 일원변량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관서규모와 급지 둘 다 직무 스트레스와 외상성 스트레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관서규모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수준에서는 경찰관이 근무하는 관서규모가 작을수록 직무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고, 관서규모가 클수록 직무 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서규모에 따른 외상성 스트레스 수준에서는 경찰관이 근무하는 관서규모가 작을수록 외상성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고, 관서규모가 클수록 외상성 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급지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수준에서는 상급지 경찰서에 근무할수록 직무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고 하급지 경찰서에 근무할수록 직무 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급지에 따른 외상성 스트레스 수준에서는 상급지 경찰서에 근무할수록 외상성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고 하급지 경찰서에 근무할수록 외상성 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경찰관 | 경찰관서 | 규모 | 스트레스 | 비교 분석 |

### Abstract

In this study, I examine whether differences in the levels of stress exist with regard to the police department size. To accomplish this, a way ANOVA analysis of variance(One-way ANOVA) was conducted. As a result,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Job stress and traumatic stress according to the department size and grade.

Specifically, first, in the job stress level on the department size, the smaller department size was, the higher job stress level was and the bigger department size was, the lower job stress level was. Second, in the traumatic stress level on the department size, the smaller department size was, the higher traumatic stress level was and the bigger department size was, the lower traumatic stress level was. Third, in the job stress level on the department grade, the lower department grade was, the lower job stress level was and the higher department grade was, the higher job stress level was. Fourth, in the traumatic stress level on the department grade, the lower department grade was, the lower traumatic stress level was and the higher department grade was, the higher traumatic stress level was.

■ keyword : | Police Officers | Police Department | Size | Stress | Comparative Analysis |

## I. 서론

지난 수십 년간 경찰관의 스트레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왔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연령, 학력, 결혼상태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스트레스 수준의 관계에 대하여 이루어졌다[1].

그러나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경찰 조직에서 기인하는 스트레스가 경찰관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찰업무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은 경찰의 조직적 특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간과해 왔는데, 특히 경찰관서의 규모는 더욱 무시되어 왔다[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조직적 특성 중 경찰관서의 규모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서 경찰관서 규모에 따른 경찰관의 스트레스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경찰 스트레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대형·도시형 경찰관서에 대한 연구에 집중해왔다. 주요 관심사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소형·농촌형·근교형 경찰관서들에도 일반화할 수 있는 가였다[4].

연구자들은 대형 경찰관서와 소형 경찰관서 소속 경찰관들의 행동과 태도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5]. 대형 경찰관서는 일반적으로 준군대적이고 상하계층제를 지닌 관료적 조직이고, 효율성·규율·생산성을 강조한다[6].

대형 경찰관서는 업무와 인간관계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관과 부하 간의 사회적 거리감이 크다고 여겨진다[7]. 반면에 대형 경찰관서는 지역사회와의 효과적 연계와 지지는 적다고 여겨진다[8].

Ostrom 등(1977)은 대형 경찰관서와 소형 경찰관서의 경찰활동에 대한 차별적 강조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 특히 소형 경찰관서의 순찰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주어졌다고 주장하였다[9].

경찰관의 태도에 대한 경찰관서 규모의 영향은 많은 학문적 관심을 받아왔다. Terry(1981)는 더욱 참여적인 조직과 리더십이 노동자들의 만족을 높인다는 연구를 인용하였다.

Gaines 등(1999)은 경찰조직이 보신적이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경찰관들의 인식 때문에 관료적 경찰관서의 업무가 대개 좌절감과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고 주장하였다[10].

White와 Marino(1983)는 직무활동에 대한 영향력의 부족이 경찰관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밝혔다[11].

Spielberger 등(1981)은 경찰활동의 스트레스 요인을 연구하여 소형·농촌형·근교형 경찰관서의 경찰관들이 대형·도시형 경찰관서의 경찰관들보다 부족한 인력을 주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밝혔다[12].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찰 스트레스 연구는 대형·관료적 경찰관서에 중점을 두어왔다. Crank와 Caldero(1991)는 대중과 사법부로부터의 위협, 모독, 역경에 대한 가능성이 스트레스 연구를 이끌어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들은 소형 경찰관서에는 해당이 없을 수 있다. 만일 대형 경찰관서와 소형 경찰관서 간에 심각한 차이가 있다면 소형 경찰관서에 대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13].

Morash와 Haar(1995)는 경찰관서 규모가 경찰 스트레스의 수준과 경찰활동에 있어서 스트레스 요인의 실재를 설명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부 연구결과 분석에 따르면 경찰관서 규모와 직무 스트레스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드러났다[14].

Regoli 등(1989)은 대형 경찰관서에서는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경찰 간부 또는 수뇌부의 통제가 적다는 연구를 인용하였다. 또한, 소형 경찰관서에서는 상관과 부하 사이는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경찰관들 사이에 비공식적 관계가 더욱 돈독하다는 연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격의 없음은 더욱 편안하고 지원적 환경을 초래할 수 있고, 스트레스의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15].

다른 경찰관들의 인정과 지지에 대한 의존은 경찰관

서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형·도시형 경찰관서는 작은 관서들에 비해 더욱 복잡하고 관료적인 조직적 특성을 지니기 쉽게 때문에 각 관서 내의 관계는 조직적 구조에 따라 다를 것으로 여겨진다[16].

또한, 대형 경찰관서와 소형 경찰관서는 담당 인구수가 다르다. 이러한 담당 인구수의 차이는 범집행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압력과 지역사회 치안서비스에 대한 노력을 야기한다[17].

### III. 연구의 방법

#### 1. 연구의 설계 및 도구

이 연구에서는 경찰관서 규모에 따른 경찰관의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구성하고 측정하였다.

먼저 독립변수는 관서규모와 급지 2가지로 구성하였다. 관서규모는 조사대상자가 근무하는 관서를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3가지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급지는 지방경찰청, 1급지 경찰서, 2급지 경찰서, 3급지 경찰서 근무 4가지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참고로 경찰청의 「경찰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규칙」에서는 경찰서 등급 결정기준을 아래의 [표 1]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1. 경찰서 등급 결정기준

등 급	등 급 결 정 기 준
1급지 (대도시형)	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 경찰서 인구 25만명 이상 시에 소재한 경찰서 인구 25만명 이상 관할경찰서
2급지 (중소도시형)	인구 25만명 미만 시에 소재한 경찰서 인구 15만명 이상 25만명 미만 관할경찰서
3급지 (농어촌형)	인구 15만명 미만 군에 소재한 경찰서

자료 : 경찰청, 경찰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규칙

가장 큰 규모인 1급지 경찰서는 인구 기준으로 25만명 이상인 도시에 소재한 대도시형 경찰서를 의미한다. 중간 규모인 2급지 경찰서는 인구 기준으로 15만명 이상 25만명 미만인 도시를 관할하는 중소도시형 경찰서를 의미한다. 가장 작은 규모인 3급지 경찰서는 인구 기

준으로 15만명 미만인 군에 소재한 농어촌형 경찰서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스트레스 수준은 조사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생활 스트레스, 경찰업무 수행 중 경험하는 직무 스트레스, 외상적 경험에 따른 외상성 스트레스 3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생활 스트레스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건들의 영향을 의미하는데 신뢰도와 타당도가 널리 검증되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Sarason 등이 개발한 생활 경험 조사질문지(Life Experience Survey: LES)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의 생활에 변화와 영향을 줄 수 있는 57건의 생활경험들이 최근 3개월 동안 발생한 빈도와 그 여파의 정도를 측정한다[18].

직무 스트레스는 경찰관이 근무 중 동료 경찰관 또는 일반 시민들과의 관계에서 겪게 되는 사건들과 관련된 것으로 Spielberg 등이 개발한 경찰 스트레스 조사 척도(Police Stress Survey: PSS)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경찰 업무와 관련된 60개의 스트레스 요인들을 제시하고 리커트 척도로 경찰관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한다[19].

외상성 스트레스는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초과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경우에 발생하는 반응과 관련된 것으로 Horowitz 등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사건충격척도(Impact of Event Scale: IES)를 이용하였다[20].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IES 및 은현정 등(2005)이 제시한 한국어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IES-R-K)을 활용하여 외상성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였다.

#### 2. 조사의 대상

이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우리나라 경찰관을 모집단으로 하여 전국에서 무작위 추출하였다. 표집된 조사대상자는 전국 23개 경찰서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이었다. 조사는 2006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자료의 수집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연구자 및 사전에 교육을 받은 연구보조자가 지

방경경찰청, 경찰서, 순찰지구대, 파출소 등의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한 후, 향후에 다시 방문하여 작성된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총 1,117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하여 통계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자료를 제외하고 1,028부를 최종적으로 연구에 활용하였다.

표 2. 조사대상자의 근무관서별 인원

근무관서	빈도(명)	비율(%)
지방경찰청	157	15.3
1급지 경찰서	273	26.6
2급지 경찰서	169	16.4
3급지 경찰서	104	10.1
1급지 지구대	193	18.8
2급지 지구대	36	3.5
3급지 지구대	27	2.6
치안센터	13	1.3
파출소	56	5.4
합 계	1,028	100

조사대상자의 관서규모별 인원을 살펴보면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546명(53.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구대 및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325명(31.6%), 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관 157명(15.3%)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를 급지별로 살펴보면 1급지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466명(45.4%)으로 가장 많았고, 2급지 경찰서 205명(19.9%), 3급지 경찰서 131명(12.7%)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157명(15.3%)이었다.

## IV. 연구의 결과

### 1. 관서규모별 스트레스 수준

여기서는 첫 번째 독립변수인 관서규모에 따른 종속 변수인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표 3. 관서규모별 생활 스트레스 수준

구 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생활	지방청	.2819	.3627	2.821	.060
	경찰서	.2570	.3356		
	지구대	.2138	.2886		

먼저 관서규모에 따른 생활 스트레스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생활 스트레스 수준이 지방청 .2819, 경찰서 .2570, 지구대·파출소 .2138 순으로 드러나 경찰관이 근무하는 관서규모가 클수록 생활 스트레스의 수준이 다소 높고, 관서규모가 작을수록 생활 스트레스의 수준이 다소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관서규모별 직무 스트레스 수준

구 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직무	지방청	2.9449	.8943	6.938	.001
	경찰서	3.1142	.8160		
	지구대	3.2333	.7282		

다음으로 관서규모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경찰관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이 지방청 2.9449, 경찰서 3.1142, 지구대·파출소 3.2333으로 드러나 경찰관이 근무하는 관서규모가 클수록 직무 스트레스의 수준이 낮고, 관서규모가 작을수록 직무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관서규모별 외상성 스트레스 수준

구 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외상성	지방청	1.8948	.9165	3.727	.024
	경찰서	2.0166	.9046		
	지구대	2.1316	.9347		

끝으로 관서규모에 따른 외상성 스트레스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경찰관의 외상성 스트레스 수준이 지방청 1.8948, 경찰서 2.0166, 지구대·파출소 2.1316으로 드러나 경찰관이 근무하는 관서규모가 클수록 외상성 스트레스의 수준이 낮고, 관서규모가 작을수록 외상성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급지별 스트레스 수준

다음으로 두 번째 독립변수인 급지에 따른 종속변수인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표 6. 급지별 생활 스트레스 수준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F값	유의 확률
생활	지방청	.2819	.965	.409
	1급지	.2398		
	2급지	.2382		
	3급지	.2212		

먼저 급지에 따른 생활 스트레스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고 큰 차이 없으나 지방청 .2819, 1급지 .2398, 2급지 .2382, 3급지 .2212으로 드러나 급지가 높은 대도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생활 스트레스 수준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7. 급지별 직무 스트레스 수준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F값	유의 확률
직무	지방청	2.9449	5.239	.001
	1급지	3.2205		
	2급지	3.1112		
	3급지	3.0303		

다음으로 급지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1급지 3.2205, 2급지 3.1112, 3급지 3.0303, 지방청 2.9449 순으로 드러나 대도시형인 1급지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이 중소도시형인 2급지와 농어촌형인 3급지에 근무하는 경찰관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8. 급지별 외상성 스트레스 수준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F값	유의 확률
외상성	지방청	1.8948	5.047	.002
	1급지	2.1262		
	2급지	2.0705		
	3급지	1.8244		

끝으로 급지에 따른 외상성 스트레스 수준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1급지 2.1262, 2급지 2.0705, 3급지 1.8244, 지방청 1.8948 순으로 드러나 외상성 스트레스 수준 역시 대도시형인 1급지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수준이 중소도시형인 2급지와 농어촌형인 3급지에 근무하는 경찰관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 V. 결론

지난 수십년간 경찰관의 스트레스 요인과 그 순위를 밝히기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일선 경찰관 및 경찰 행정가의 인식에 주안점을 두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경찰 스트레스에 대한 예측변수를 밝히기 위해 연령, 성별, 인종, 결혼 상태, 배치 형태, 계급, 근무연한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직무만족, 냉소주의와 같은 경찰관의 태도 등 다양한 변수들 포함해서 이루어져 왔다[21].

그러나 이러한 실증적 연구들은 경찰관서의 규모와 같은 조직적 특성에 대해서는 간과해왔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조직적 특성 중 경찰관서의 규모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경찰관서 규모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수는 관서규모와 급지, 종속변수는 생활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외상성 스트레스로 구성하여 일원변량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는데 관서규모와 급지 둘 다 직무 스트레스와 외상성 스트레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서규모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경찰관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이 지구대·파출소, 지방청, 경찰서 순이었다. 따라서 경찰관이 근무하는 관서규모가 작을수록 직무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고, 관서규모가 클수록 직무 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내근근무를 위주로 하는 지방청, 경찰서 보다 외근근무를 위

주로 하는 일선 경찰관들이 직무수행 중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관서규모에 따른 외상성 스트레스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경찰관의 외상성 스트레스 수준이 지구대·파출소, 지방청, 경찰서 순이었다. 따라서 외상 스트레스 수준 역시 직무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경찰관이 근무하는 관서규모가 작을수록 외상성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고, 관서규모가 클수록 외상성 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역시 일선 현장에서 근무를 많이 할수록 외상성 경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급지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1급지, 2급지, 3급지, 지방청 순이었다. 따라서 내근인 지방청 근무자를 제외하고는 상급지 경찰서에 근무할수록 직무 스트레스의 수준이 낮고 하급지 경찰서에 근무할수록 직무 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아무래도 농어촌이나 중소도시에 비해 대도시가 상대적으로 업무 및 사건이 양적·질적으로 부하가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넷째, 급지에 따른 외상성 스트레스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1급지, 2급지, 3급지, 지방청 순이었다. 따라서 외상 스트레스 수준 역시 내근인 지방청 근무자를 제외하고는 상급지 경찰서에 근무할수록 외상성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고 하급지 경찰서에 근무할수록 외상성 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외상성 경험 역시 농어촌이나 중소도시에 비해 대도시에서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질적·양적으로 높기 때문일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두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관서규모와 관련해서는 직무 스트레스와 외상성 스트레스 모두 관서규모가 작은 일선 현장에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일선 경찰관들이 직무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일선 경찰관들 중심각한 수준의 직무 및 외상성 스트레스로 고통 받는 경찰관들에게는 심리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결

과에 따라 치료, 휴직, 내근 전환 같은 맞춤형 처우를 제공하는 등의 경찰 복지적 접근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급지와 관련해서는 직무 스트레스와 외상성 스트레스 모두 대도시인 상급지에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도시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차별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대도시에 근무하는 문제 경찰관들에게도 심리치료, 근무지역 변경 같은 적극적 대안들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일반화하고 정책적 제언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더욱 더 많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L. W. Brooks and N. L. Piquero, "Police stress: does department size matter?,"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Vol.21, No.4, pp.600-617, 1998.
- [2] F. H. Aron, *An analysis of sources of police stress*, Master of Science in Public Administration, Russell Sage College, Troy, NY, 1991.
- [3] L. W. Brooks and N. L. Piquero, "Police stress: does department size matter?,"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Vol.21, No.4, pp.600-617, 1998.
- [4] J. P. Crank and M. Caldero, "The production of occupational stress in medium-sized police agencies: a survey of line officers in eight municipal department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10, pp.339-349, 1991.
- [5] M. K. Brown, *Working the Street: Police Discretion and the Dilemmas of Reform*, Russell Sage Foundation, Troy, NY, 1981.
- [6] E. Bittner, *The Functions of Police in Modern Society*, National Institutes of Mental Health, Rockville, MD, 1970.

- [7] M. Banton, *The Policeman in the Community*, Basic Books, New York, NY, 1964.
- [8] J. P. Crank and M. Caldero, "The production of occupational stress in medium-sized police agencies: a survey of line officers in eight municipal department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10, pp.339-349, 1991.
- [9] E. Ostrom, R. Parks, and G. Whitaker, "The Police Services Study," Bloomington, Workshop in Political Theory and Policy Analysis, Indiana University, 1977.
- [10] L. Gaines, M. Southerland, and J. Angell, *Police Administration*, McGraw-Hill, New York, NY, 1991.
- [11] S. White and K. Marino, "Job attitudes and police stress: an exploratory study of causation,"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Vol.11, No.3, pp.264-274, 1983.
- [12] C. D. Spielberger, L. G. Westbury, K. S. Grier, and G. Greenfield, *The Police Stress Survey*, Human Resources Institute, Monograph Series Three: No.6, University of South Florida, Tampa, FL, 1981.
- [13] R. Regoli, J. Crank, and R. Culbertson, "Police cynicism, job satisfaction and work relations of police chiefs: an assessment of the influence of department size," *Sociological Focus*, Vol.22, No.3, pp.161-171, 1989.
- [14] M. Morash and R. Haarr, "Gender, workplace problems and stress in policing," *Justice Quarterly*, Vol.12, pp.113-140, 1995.
- [15] M. Reiser, "Some organizational stresses on policemen," *Journal of Police Sciences and Administration*, Vol.2, No.2, pp.277-290, 1974.
- [16] E. D. Poole, R. M. Regoli, and R. Lotz, "Linkages between professionalism, work alienation and cynicism in large and small departments," *Social Science Quarterly*, Vol.59, No.3, pp.525-534, 1978.
- [17] L. W. Brooks and N. L. Piquero, "Police stress: does department size matter?,"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Vol.21, No.4, pp.600-617, 1998.
- [18] 신성원, *경찰공무원의 일상적 직업적 경험이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19] Riddle, Robin Thomas, *The Relation Between Life Stress, Work Stress, and Traumatic Stress and Burnout and Cynicism in Police Officers*,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Dissertation for Ph.D., pp.64-67, 1999.
- [20] M. Horowitz, N. Wilner, and W. Alvarez, "Impact of event scale : A measure of subjective stress," *Psychosom Med*, Vol.41, pp.209-218, 1979.
- [21] L. W. Brooks and N. L. Piquero, "Police stress: does department size matter?,"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Vol.21, No.4, pp.600-617, 1998.

#### 저 자 소 개

신 성 원(Seong-Won Sin)

증신회원



- 2001년 2월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법학사)
- 2003년 8월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석사)
- 2007년 2월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경찰학, 범죄학, 청소년비행